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약물안전교육의 실태와 보육교사의 약물안전교육 인식에 대한 연구

정정선*

경기도지부 고양시분회, 신중앙약국

(2018년 4월 24일 접수 · 2018년 5월 12일 수정 · 2018년 5월 13일 승인)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tion Safety Education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Child Care Teachers about Medication Safety Education in National Child Care Centers

Jeongseon Jeong*

Pharmaceutical Association of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Shin Jung Ang Pharmacy

(Received April 24, 2018 · Revised May 12, 2018 · Accepted May 13, 2018)

ABSTRACT

Keywords:

Medication safety
Infant
Child care teacher
Pharmacist
Education

Objective: The local pharmaceutical association (LPA) of Goyang City, Korea conducted an education & training for safe-use of medication (ETSUM) program for infants at the National Children's Center (NCC), for the teachers working at the Childcar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CCSC), and for parents at the Moms & Kid's Cafe in 2017. As I participated in this ETSUM program, I wanted to know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of NCC teachers who are virtually responsible for drug safety for infants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ducation of teachers on ETSUM for infants. The study sought to find an effective way to provide a safe use environment of drugs for infants at NCC.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CC teachers working at an NCC in Goyang City. The survey was carried out by mailing, which was distributed to 294 people surveyed and collected 271 copies. **Results:** First, the frequency of medication accidents was 14 out of 271 (5.2%). Most of the accidents involved taking medications from other children or taking excessive amounts, and the cause was negligent management by teachers or parents. Second, most of the teachers replied they had a ETSUM for infants, while 8 teachers said they had no ETSUM program. The answer was that the ETSUM was conducted most frequently, once or twice a month, using audiovisual teaching materials. Some 149 said that ETSUM for infants should be effective only if pharmacists take charge of the program, and 103 said that every teacher should be given it. On the time of conducting ETSUM for infants, 141 of the 268 (52.6%) cases were preferred to provide the education accompanied by the care process. On the other hand, 45 cases (16.8%) were found to be preferred to follow the schedule of the LPA and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it is necessary for the ETSUM to be conducted by a pharmacist, it should be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regular child care process. Third, only 210 of 270 (77.5%) respondents answered they received ETSUM. Educations were provided at CCSC (37.4%), NCC (33.2%),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31 cases), and other web-based education (23 cases). The survey shows that teachers believe their own safety conscious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fety lives of infants and children. In many cases, they said they would be trained if they had an ETSUM session, and 243 out of 263 (92.4%) said they would be more likely to be educated 1~2 times per year.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pharmacists to participate in ETSUM for infants, a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PA will also be more practical in providing for the NCC teachers with educational materials like video clips. ETSUM should be more systematically conducted for the teacher, and should be provided by pharmacists.

*Corresponding author : Jeongseon Jeong, ShinJungAng Pharmacy, 550, Jungang-ro, Deogyang-gu, Goyang-si 10495,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31-973-6630, Fax: +82-31-971-3990, E-mail: zzyng9@hanmail.net

서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이후 지난 30년간 취업률, 임금상승률, 임금소득근로자 비율 등의 지표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특히 30대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제가 실시되면서 이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여 시설내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들은 아직 신체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을 담당하는 보호자들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들이 심신의 발달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역할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안전’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데, Morz는 ‘안전이란 사고의 예방과 개인적 피해 또는 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Stasser, Aaron, Bohn은 ‘인간 행동의 변화로 인한 상태 또는 조건이며 위험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물리적 환경의 조정에 의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안전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재해나 사고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지식, 기술 등을 터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며,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자면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적극적 방법으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전대책 실태는 취약한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1년 2,992건, 2012년 2,485건, 2014년 5,814건으로 점차 증가세이고 201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1만 6,921명이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독사고는 700건여 건인데 이 중 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22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세탁용품에 의한 사고가 90건(1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 중독사고의 60% 이상이 3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이다(Table 1).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위해품목에는 감기약 등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조리식품, 방습제, 가루형 세탁제 등 청소·세탁용품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onsu-

Table 1. 연령별 중독사고 발생 현황

구분	1세 미만	1~3세	4~6세	7~14세	합계
빈도(n)	100	521	92	104	817
비율(%)	12.2	63.8	11.3	12.7	100.0

Table 2.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제품 현황

중독발생 품목	빈도(n)	비율(%)	중독발생 품목	빈도(n)	비율(%)
기타 약품	170	20.8	체온계	14	1.7
살충제	65	8.0	담배	14	1.7
표백제	56	6.9	해열제	13	1.6
감기약	37	4.5	식기세척용품	13	1.6
비누&세탁소용제	34	4.2	애완동물기타	12	1.5
기타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	26	3.2	방습제	11	1.3
매니큐어 용품	26	3.2	손세정제	11	1.3
소독살균제	18	2.2	기타완구, 인형	9	1.1
탈취제	15	1.8	기타*	273	33.4
합계				817	100.0

※ 기타 중독사고 주의품목: 화장품, 방향제, 매니큐어액, 샴푸, 샤워젤, 모기향, 다용도접착제, 세정제, 건조살균제, 비타민제, 등유, 페인트, 가정용주방온도계, 모발염색제, 소독제, 피임약, 피부병약, 진통제, 렌즈 세척제, 잡초약, 위장약, 자동차세척제, 식초, 건전지, 안약 등

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동향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CISS를 통해 최근 3년간 접수된 0세부터 14세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75,078건이며, 이 중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것이 60,432건으로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중 80.5%를 차지하였고, 그 중 6%는 교육시설 안에서 발생하였다.¹⁾ 우리나라 17개 지역별 인구 100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0.32건이다.¹⁾

영·유아들은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체득한 학습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을 지니고, 특히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²⁾ 안전교육은 가능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 영·유아기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향하는 생활습관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평상시에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위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비로소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사고의 대처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모든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발생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에 예측하기

도 어렵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³⁾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담당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위탁된 영·유아들은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보육교사를 믿고 의지하므로 해당 교사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즉, 교사들은 일상에서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지하고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수와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영·유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 실천해야 한다.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보육교사의 인식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안전교육은 사고위험을 줄이는 필수 요소이며 교육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일 방법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중요 요소가 된다. 영유아 안전교육의 실태를 점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4,6)} 영·유아 보육교사들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만큼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도 적절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영·유아 안전교육용으로 시중에서 쓰이는 자료들이 교육대상자 연령에 부적절하며 영·유아의 흥미유발 측면에서도 교재, 교구의 양적, 질적인 모든 수준이 부족하다.⁷⁾ 질 높은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는 여전히 높다.⁸⁾ 하지만 교사가 참여할 실용적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대개의 교육은 이론적 지식의 전달에 치중한다. 또한,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라도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영·유아 대상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보육교사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한 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화재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및 대응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항(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영유아 안전교육에 기준하여 교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자료는 일단 법적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이론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 그리고 교사의 경력 기간이 길수록 영·유아 안전교육을 적

절히 계획,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 있는 교사일수록 영·유아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교육의 진행에도 경력에 의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안전교육자료와 지침서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연수기회를 제공받아 교사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갖추도록 연구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⁴⁾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를 다룬 연구에서도⁴⁾ 교사들이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영아 대상 교육 자체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료의 부족’이며, 영아 대상 안전교육 책임자에 대한 교사의 견해로는 ‘부모, 교사, 안전교육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음을 볼 때, 안전교육은 부모나 교사 중 일방의 책임이 아닌, 부모와 교사, 안전교육 전문가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중인 관행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바로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각 항목에 대하여 문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안전 전문인력은 확보, 육성하지 않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보육교사에게 할당하는 것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박혜란 등의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 실시할 전문기관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데, 이는 현단계에서는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효과적인 교육의 지도방법이 미흡함을 의미한다.¹⁰⁾ 김효숙 등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가용 연수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요구했는데 이는 많은 자료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¹¹⁾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안전교육지침서를 개발하고 안전교육연수를 통해 보육교사는 항상 안전에 대한 깨어 있는 사고가 필요하며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과 생활주변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물 관련 지식보유 정도와 약물오남용 사고발생은 밀접하게 연관되며, 약물에 대한 용량·용법 의 정보를 얻지 못했거나 지식이 낮을수록 약물오남용 사고발생의 빈도가 커진다. 따라서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기본 교육이 꼭 필요하다. 영·유아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 안전교육 내용에는 약물의 위험성 인식하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 및 화학제품을 그림으로 구별하기, 잘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가정용 화학제품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어린이용 약이라도 함부로 남용

하지 않기 등인데, 법은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문가 또는 담당자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례분석 등과 같은 교육방법이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교육만 실시하는 실정이며 국가차원에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다.¹²⁾ 따라서 영·유아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단속 및 규제 이외에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른바 체계화된 의무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안전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약물오남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사건발생 시 능숙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평가할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³⁾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영유아 교육시설내 영·유아나 보육교사의 약물안전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육교사들의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하였다.

이에, 경기도지부 고양시약사회는 2017년도 1년간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누적 10회 교육에 연인원 534명).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5회 202명),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이러브맘 카페 프로그램에 참석중인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8회 150명). 하지만 약물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영·유아의 약물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점이 있어 보육교사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약물안전사고의 실태, 보육교사들의 약물안전교육 이수현황,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등을 파악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에게 안전한 약물환경을 제공할 세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①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사고 유무와 안전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②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약물안전교육 실태를 알아본다. ③ 보육교사의 약

물안전교육 인식수준을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2. 수행방법

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2018년 2월부터 여러 안전교육들에 관한 설문연구를 참고하였다.¹³⁻¹⁵⁾ 조사대상은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이며 설문지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8명의 고양시 약물안전강사단이 검토하였다.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교사 294명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271부였으며(회수율 92.2%)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설문 내용

①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및 담당아동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을 묻는 2문항, ②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사고의 유무 및 사고유형 원인을 묻는 3문항, ③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의 실시여부와 시행주기, 자료실태를 묻는 3문항, ④ 보육교사대상 약물안전교육 실시여부와 시행주체, 교육내용을 묻는 5문항, ⑤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 즉, 약물안전교육의 필요성, 시행이유, 교육의 영향력 등을 묻는 14문항, ⑥ 약물안전사고 대처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 약물안전사고 후 대처방안 인식수준을 묻는 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3. 결과분석

설문조사된 내용에 근거하여 수립한 연구문제를 분석하는데 SPS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사의 안전교육 현황과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교육경력과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경력은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사가 전체 271명 중 104명으로 38.4%를 차지하였고 8년 이상인 교사도 43명이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교사가 41명이었다. 담당한 영·유아의 연령은 만 1세반이 56명, 만 2세반은 6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기타는 0세반이나 원장인 경우였다(Table 3).

Table 3. 연구대상자 특성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교육경력	1년 미만	27	10.0
	1년 이상 3년 미만	41	15.1
	3년 이상 6년 미만	104	38.4
	6년 이상	22	8.1
	8년 이상	34	12.5
	10년 이상	43	15.9
담당연령	만 1세반	56	20.7
	만 2세반	65	24.0
	만 3세반	33	12.2
	만 4세반	27	10.0
	만 5세반	20	7.4
	기타	70	25.8

Table 4. 어린이집 약물안전사고 유무와 사고유형 및 원인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약물 안전사고	있다	14	5.2
	없다	257	94.8
사고유형	다른 아이 약을 먹은 경우	3	42.9
	약물 과용량을 먹은 경우	3	42.9
	제대로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경우	0	0
	약물 보관을 잘못된 경우	1	14.3
사고원인	영유아의 직접적인 원인	7	20.6
	약물 교사의 부주의나 관리소홀	13	38.2
	부모의 관리소홀	10	29.4
	기타	4	11.8

2. 어린이집 약물안전사고 유무와 사고유형 및 원인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상 현황조사에서 약물사고는 전체 271건 중 14건으로 5.2%의 비율을 보였다. 사고유형은 다른 아이의 약을 먹거나(3건), 과용량을 먹은 경우(3건)이었고 약물보관을 잘못된 경우가 1건이었다. 안전사고를 겪은 보육교사의 일부는 유형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고원인은 교사의 부주의나 관리소홀이 13건, 학부모의 관리소홀이 10건으로 나왔는데 이중 사고를 겪지 않고 표시한 보육교사가 일부 있었다(Table 4).

3.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은 97%의 보육교사가 실시한다고 대답했으며 3%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실시빈도는 64.1%의 교사들이 월 1회 실시 중이었고, 월 2회인 경우나 기타인 경우도 10%대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교육자료는 DVD 등 시청각 자료인 경우가 42%(116건)였고 교재교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31.4%(85건)나 되어 영유아 안전교육은 대부분 시청각 자료 및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진행됨

Table 5.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 현황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아동교육유무	실시하지 않고 있다	8	3.0
	실시하고 있다	263	97.0
아동교육주기	매일	0	0
	주 1회	14	5.2
	주 2회	1	0.4
	월 1회	168	64.1
	월 2회	36	13.7
	기타	43	16.4
아동교육자료	인터넷	57	21.4
	DVD 등 시청각 자료	117	44.0
	교재 교구	85	32.0
	기타	7	2.6

을 알 수 있었다(Table 5).

4. 보육교사대상 약물안전교육 실태

보육교사 대상 교육은 77.5%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22.1%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재질문한 결과 교육주기는 연 1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연 2회를 받은 경우도 22.2%였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자체교육은 33%로 나타났다. 안전관리기관에 의한 교육이 14.7%(31건), 기타 온라인교육 등은 10.9%(23건)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고양시 약사회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이수자 79명과 약사회교육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인터넷 방식이었고 내용도 약물안전교육 중 극히 일부인 영·유아에게 자주 사용되는 약물복용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중심이 56.9%를 차지하였다(Table 6).

5.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

대다수의 보육교사는(91%) 약물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로서 영·유아가 약물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효과적인 교육시기는 ‘영·유아 약물안전교육 실시기점을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해야 한다’가 52.6%(141명)였고, ‘상황에 따라서’ 22%(59건), ‘약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할 때가 좋다’는 의견은 16.8%(45건)이었다(Table 7).

향후 약물안전교육 기회가 생기면 꼭 받겠다는 보육교사는 전체의 57.7%(154명)이었고, ‘생각해보겠다’는 40.8%(109명)로 대부분 긍정적이며, 연 1~2회 교육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Table 6. 보육교사 대상 약물안전교육 현황

구 분	내 용	빈도 (n)	비율 (%)
교육 유무	받아 본 적이 있다	210	77.8
	받아 본 적이 없다	60	22.2
교육 주기	연 1회	120	56.6
	연 2회	47	22.2
	분기 1회	18	8.5
	월 1회	11	5.2
	기타	16	7.5
교육 실시 주체	육아종합지원센터	79	37.4
	어린이집 자체 교육	70	33.2
	약사회 교육	3	1.4
	안전관리기관	31	14.7
	간행물	4	1.9
	기타	23	10.9
교육 내용	영유아 약물의 특징	53	25.4
	약물 부작용 발생시 방법	46	22.0
	연고제 안약 등 특정약물 사용방법	7	3.3
	영유아에게 자주 사용되는 약물의 복용법	85	40.7
	기타	18	8.6
교육 방법	실기 중심	4	1.9
	강의 중심	119	56.9
	강의 후 실기	9	4.3
	시청각 자료중심	38	18.2
	사례별 토론 중심	7	3.3
	온라인 강의	32	15.3

92.4%에 달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체로 약사전문가를 선택한 경우가 55.6%(149명), 교사 38.4%(103명)를 선택하여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더 선호하였다. 영·유아 약물안전교육의 적절한 방법으로는 ‘이야기 나누기, 조형, 동화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활동을 한다’는 전체 264중 85명(32.2%), ‘영·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상적 역할놀이를 통하여 한다’ 90명(34.1%)이었고, 그 외 ‘약사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17.4%였다. 또한 보육교사가 약물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킬 적절한 방법으로는 첫째, 교사의 체험기회제공, 둘째, 교육자료 및 교구확충을 선택하여 체협학습의 중요성과 교수자료 및 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Table 8).

또한, 이전에 약물안전교육을 이수했던 교사가 향후 연수 기회가 생겼을 때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을 받을수록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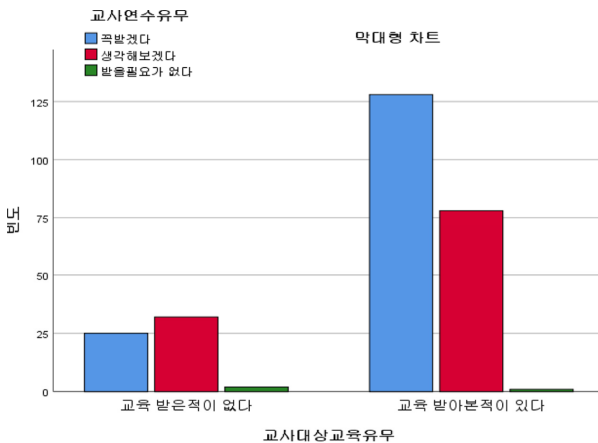
한편, 어린이집 교육교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교사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도 97명이었다. 어린이집의 교육교재가 보통 정도는 가지고 있고 적절하다는 교사도 36.6%이므로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교육 횟수에 대해

Table 7.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의 필요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필요하지 않다	1	0.4
	보통이다	13	4.9
	필요하다	119	44.4
	매우 필요하다	135	50.4
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7	2.6
	정부나 학부모가 영·유아 약물안전교육을 원하므로	2	0.7
	사회적으로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11	4.1
	영·유아기는 약물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245	91.4
	기타	3	1.1
교육을 언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약물안전교육을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141	52.6
	상황에 따라	59	22.0
	약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을 때	45	16.8
	별도 정해진 시간(매주 월요일 오전10시 등)	23	8.6
교육 실시 주기	매일	2	0.8
	주 1회	24	9.0
	주 2회	7	2.6
	월 1회	173	65.0
	월 2회	31	11.7
	기타	29	10.9

Table 8. 보육교사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교사 연수기회	꼭 받겠다	154	57.7
	생각해 보겠다	110	41.2
	받을 필요가 없다	3	1.1
교사 연수횟수	연 1회	123	46.8
	연 2회	120	45.6
	연 3회	8	3.0
	연 4회 이상	8	3.0
	기타	4	1.5
영·유아 교육주체	교사	103	38.4
	원장	4	1.5
	약사전문가	149	55.6
	학부모	10	3.7
	기타	2	0.7
교육 활성화 방법	교사용 지도서 발행	28	10.5
	교사 연수 기회 제공	40	15.0
	교수자료와 교구 확충	80	30.0
	학부모 연수 기회 제공	37	13.9
	영유아, 교사의 체험 기회 제공	82	30.7

**Fig. 1.** 교육이수 유무에 따른 교육필요성 인식 비교

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2.6%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되고 있다고 사료된다(Tabl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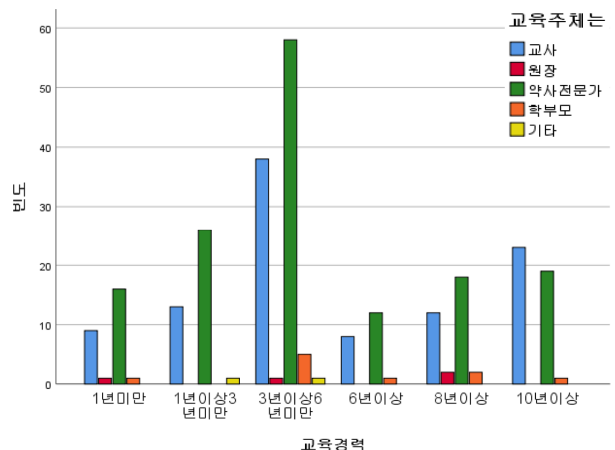
경력별로 선호하는 교육주체에 대한 교차분석을 해본 결과, 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약사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효과적인 교육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경력 10년이상 교사들은 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Fig. 2).

6. 약물안전사고 대처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

약물안전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혹은 ‘매우

Table 9.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보육교사의 만족도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어린이집의 교육 교재 및 자료 적절도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그렇지 않다	19	7.2
	보통	121	45.7
	그렇다	97	36.6
	매우 그렇다	25	9.4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 횟수	전혀 적당하지 않다	0	0
	적당하지 않다	6	2.3
	보통	63	23.8
	적당하다	166	62.6
	매우 적당하다	30	11.3

**Fig. 2.** 교육경력에 따른 영·유아 대상 교육주체에 대한 선호도 비교**Table 10.** 약물안전사고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유지식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내 용	빈도(n)	비율(%)
약물안전사고 대처방안	전혀 모른다	0	0
	모른다	1	0.4
	보통	45	17.0
	알고 있다	153	58.0
	매우 잘 알고 있다	65	24.6
대처방안 만족도	매우 불만족	0	0
	불만족	2	0.8
	보통	51	19.2
	만족	154	57.9
	아주 만족	59	22.2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교사가 82.6%(218명)에 달하여 교사들이 대체로 약물안전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처방안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만족’과 ‘아주 만족’을 선택한 교사가 81.1%(213명)로 대다수가 현재의 대처방안에 만족하고 있었다(Table 10).

고 찰

본 연구는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설문조사하여 영·유아의 약물사고 및 약물안전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교사의 교육실태와 약물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속적 약물안전교육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사고와 안전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안전의식을 토대로 약물안전교육에 특화된 상세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사 대상 약물안전교육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이 고양시로 한정되었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서 각급 교육기관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약물안전사고의 빈도, 영·유아 대상 교육, 보육교사 대상 교육의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약물안전사고의 발생빈도는 전체 271건 중 14건(5.2%)이었다. 사고유형은 다른 아이의 약을 복용하거나, 과용량을 복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원인은 보육교사나 학부모의 관리소홀인 경우였다. 두 번째, 보육교사 중 97%는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하였으나 8명의 보육교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빈도는 월 1~2회가 많았으며, 대부분 시청각 자료,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진행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함에 가장 효과적인 주체로 149명이 약사를 선택했으며 교사를 꼽은 경우는 103건에 달했다. 또 52.6% (141명)의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를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59명(22%), 약사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을 때 교육받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도 45명(16.8%)에 달했다. 이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교육이 약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상시적으로 보육과정과 연계되어 진행해야 한다고 인지하였다. 세 번째, 보육교사 대상 교육은 77.5%가 받았다고 답하였고, 교육실시 주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경우는 37.4%, 어린이집 자체교육은 33.2%였고 안전관리기관에 의한 교육 14.7%, 기타 온라인 교육 등이 10.9%였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안전의식이 영·유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약물안전교육 기회가 생긴다면 꼭 받겠다고 하였다. 교육빈도는 연 1~2회가 적당하다는 비율이 92.4%로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효과적이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약사전문가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 교육 시 지역사회 전문가(소방관, 간호사 등)가 교육에 참가하면 영·유아들이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약사회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약사회에서는 2017년 약바로 쓰기운동본부 예산으로 10회 국공립 어린이집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을 요청하여 어린이집 예산으로 10회 실시할 계획이다.

영·유아 약물안전교육은 보육과정과 연계한 보육교사에 의한 상시적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는 상승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감을 형성한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약물안전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고양시 약사회는 2017년 보육교사 대상으로 전체 보육교사(2017년 12월 기준 6,297명)중 3.2%인 202명에게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 국공립교사(674명) 비중이 55%인 111명이 교육을 받았고 민간(2,410명), 가정(2,782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85명이 참석하였다.¹⁶⁾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참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육참여가 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건상 참여가 곤란한 보육교사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약사회에서 보육교사가 이용할 교육교재,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면 보육교사의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육교사 대상 약물안전교육은 몇몇 지역약사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지만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예전에 진행되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미래에는 보육교사 대상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자체에 대한 교육은 약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수증을 수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수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하는 주체는 교사, 전문가만 아니라 학부모도 큰 역할을 맡아야 하므로 학부모 대상 교육 역시 중요하다. 영유아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함을 고려한다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에서 부모들은 매우 구체적인 안내와 지침을 바라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는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학부모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약물안전교육 지침서를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제작,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결 론

영·유아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약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보육교사가 주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보육교사가 활용할 교육교재, 동영상 자료와 보육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안전의 주체는 교사와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고문헌

- 1)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보고서. 2017.
- 2) Hong HS. A study on the teacher's safety cognition about the infant development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2002.
- 3) 정경이.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현황 및 교사교육 요구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2016.
- 4) 유정민.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운영 실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5) Joo YM. Real state and perception investigation on safety education of infant teacher.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2014.
- 6) Hong CR. The state of safety education of the baby and infant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afety acci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4.
- 7) Kim SO.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safety educa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18.
- 8) Kim HS. Investigation and needs analysis on in-service teacher training of nursery teachers at child care cent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2015.
- 9) Jang SY.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oddler child care targets of accidents and safety train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2011.
- 10) Park HR.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Infant Kidnapping -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09.
- 11) Kim HS. Investigation and needs analysis on in-service teacher training of nursery teachers at child care cent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2015.
- 12) 최태영.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 관차원의 지원 대책 및 검토 과제 제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2007.
- 13) Choi KA. Analysis on Perception, Operational Status and Intervening Factors of Teachers in Infant and Child Safety Education :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2017.
- 14) Choi WH. The cognition of teacher on the state of safety education and the safety accid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je University. 2015.
- 15) Hong GH. A Study on Jeju Daycare Teachers' Awareness of Safety Accidents and Safety Traini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7.
- 16) 통계청. 고양시 보육교직원 현황. 2017.
- 17) Won SD.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effective adolescent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2002.